

독서 활동 노트

프란치, 인종차별을 넘어 행진

* 프란치 루진코트 지음 권가비 옮김



*
학생용

무엇이 담겨 있을까?	◆ 2
이렇게 읽었어요	◆ 3
인물 집중 탐구	◆ 4
나의 경험과 관련 짓기	◆ 6
주인공의 마음 읽기	◆ 8
응원의 편지 쓰기	◆ 10
세계는 지금	◆ 11



책을 읽기 전 표지를 살펴보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표지를 보고, 이 책의 내용을 짐작해 보세요.
2. '인권'은 무엇인가요? 아는 만큼 적어 보세요.
3. 인종차별은 무엇인가요?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나 해본 적이 있나요?

1.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옮겨 쓰세요.
2. 위 내용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4.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1. 아래 문장에 있는 빈칸을 채워 보세요.

프란치는 ()에서 태어났어요. 취미는 ()와 ()
고요. 프란치는 블랙먼 선생님의 권유로 고등학생 때 ()을 알게
되었어요. 실천 운동가와 조직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배울 수 있었지요. 그리고
대학생이 된 프란치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고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
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평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2. 프란치가 책에서 말하는 ‘유익한 소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3. 프란치는 자신을 배트맨 같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 프란치가 만든 ‘흑인 목숨 전략’ 단체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1. 여러분 주변에도 프랜차이즈처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나서는 친구가 있나요?

-
2. 여러분은 살면서 부당하게 차별받아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① 내가 받아 본 차별	
② 그때의 기분	
③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한 노력	

다음 본문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유익한 소동이란,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불편해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며 기꺼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한다는 뜻이다. 불편해지는 것이 편해져야 한다는 의견은 내 인생에서 매우 강조하는 조직 구성 원칙이다. 고등학교 때 흑인 학생회를 시작하던 당시를 돌이켜 보면 내 이름이 회장으로 발표될 때 백인 학생들이 웃고 놀리던 기억이 떠오른다. 불편했지만, 내 뜻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놀림받는다고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불편해지는 것에 편해져야 했다. 내가 변화를 만들어 가는 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마음 자세는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 본문 102쪽

1. ‘불편해지는 것이 편해져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프란치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나요?

읽은 후 5 **응원의 편지 쓰기**

프란치스는 현재 뉴욕에 살면서 흑인 목숨 전략 단체를 통해 꾸준히 학생 리더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또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판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 입학시험 공부도 하고 있지요. 프란치에게 응원원의 편지를 써보세요.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차별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이예요.

우리 사회에는 힘이 없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소수자는 인종, 문화, 종교적 배경으로 인한 편견이나 차별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권마저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은 편의 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요. 북한 이탈 주민은 직장을 구할 때 차별을 받고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과 근로 조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수자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여 배타적인 생각을 버리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해요.

— 출처: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용어사전

1. 위 글에서 '배타적인'은 무슨 뜻인가요?

2. 피부가 조금 까맣다고 해서,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왜 나쁜가요?

-
3. 나도 모르게 특정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진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편집자의 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선 아이들

〈빛을 든 아이들〉 시리즈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 극심한 역경을 맞닥뜨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지난 경험과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가요? 여러분의 삶 또는 이 사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편집자들은 독자 여러분이 책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열한 삶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자은이 프란치 루진코트

뉴욕 브루클린의 아이티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때 학생회장을 맡아 실천 운동가로서의 역할을 배웠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부당한 현실에 맞서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 ‘흑인 목숨 전략’ 단체를 만들어 평화 시위를 주도했다. 현재는 뉴욕에 살면서 ‘브루클린 공동체 이사회 17’ 위생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로스쿨 입학시험을 준비 중이다.

윤진이 권가비

고려대학교에서 지리교육과 영어영문학을 공부했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했다. 번역서로 《내 인생 최고의 책》 《용서의 나라》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소년의 불꽃》 《멈춰! 기후변화》, 〈익스플로러 아카데미〉 시리즈가 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을 든 아이들〉 시리즈

재난과 참사로 빅 트라우마를 경험한 청소년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이끌면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논픽션 시리즈입니다.



**아다마,
테러를 향한 외침**
무슬림 차별에 맞선
소녀 이야기

아다마 바 지움 | 권가비 옮김 |
124쪽 | 13,000원



**프레시타,
난민을 위한 노래**
소수민족의 희망이 된
소녀 이야기

프레시타 토리 잔 지음 |
권가비 옮김 | 128쪽 |
13,000원



**살바도르,
기후위기에 대한 도전**
거대한 재난 속
빛을 든 소년 이야기

살바도르 고메즈 콜론 지음 |
권가비 옮김 | 112쪽 |
13,000원



**프란치,
인종차별을 넘어 행진**
흑인 인권을 드높인
소년 이야기

프란치 루진코트 지음 |
권가비 옮김 | 116쪽 |
13,000원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도서출판 다른은 2004년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290여 종의 도서를 출간했으며, 다수의 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교육청, 세종도서 문학나눔 및 교양부문,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행복한아침독서, 어린이도서연구회, 학교도서관저널 등에서 우수도서 및 권장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든다”라는 믿음으로 생태, 평화, 인권, 나눔에 관한 책을 꾸준히 만들어 온 도서출판 다른은, 오늘도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 신간 정보와
활동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다면?



도서출판 다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인종차별을 멈출 수 있을까?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거리로 나선 소년 이야기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늘 낙인과 싸워야 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나요?

때론 바뀌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맞서고 행동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재난, 참사, 차별을 겪고 빅 트라우마를 경험한 십대가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힘들었던 과거를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심민영

